

## 남구보건소 오영숙씨 보건부장관 표창

광주시치과의사회 '구강의 날' 행사

제61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김나현)가 9일 구강보건상 시상과 함께 시민구강강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오전 10시부터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최우수 건치 학생, 건치모자(母子), 건치노인, 건치 모범학교·교사에 대한 시상을 한다. 사회봉사활동을 충실히 한 치과의사와 제4회 백일장 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을 함께 열린다.

김나현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은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는 초·중학생 구강검진, 저소득 소외계층 무료 구강진료사업, 장애인 무료치료진료사업 등 각종 봉사사업으로 치과의사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강보건상 수상자 명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광주 남구보건소 오영숙

◆광주광역시장 표창

▲이노법(예인원치과) 원장▲

이봉규(이봉규 치과)원장 ▲손철

룡(손철룡 치과) 원장 ▲정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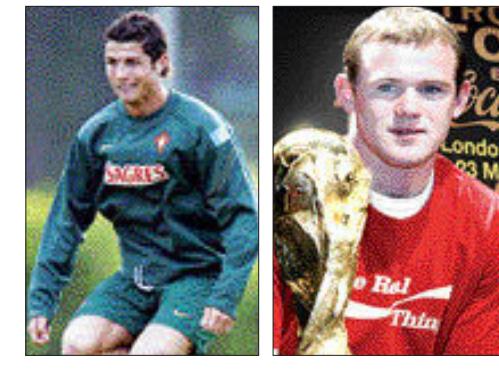
(비손 치과)원장 ▲위유민(위민

치과)원장 ▲양우열(광주치과의

사회 국장) /서민정기자 vio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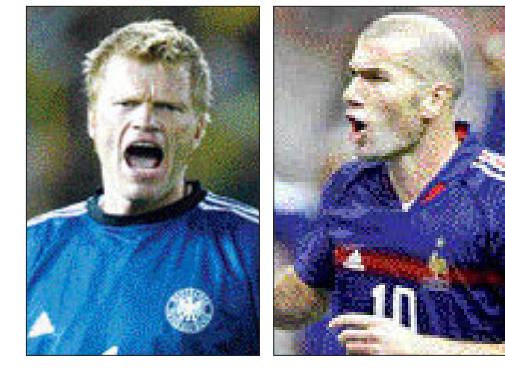
## ■ 2006 獨 월드컵 또는 별, 지는 별

## 호날두·루니 뜨고 칸·지단 고별무대



## 아르헨 희망 메시·박주영 '베스트 영플레이어상' 도전

## '거미손' 칸·카푸·델 피에로·최진철 등 유종의 미 최선



〈올리버 칸〉 〈지네딘 지단〉

스티들의 경연장이자 고별무대. 2006 독일 월드컵이 그렇다.

우선 국제축구연맹(FIFA)이 이번 월드컵부터 21세 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베스트 영플레이어'상을 신설, 수상 후보들에 관심이 쏠린다.

후보 자격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FIFA 홈페이지 판 투표로 뽑힌 3명과 FIFA 테크니컬스터디그룹(TSG)이 선정한 3명 등 총 6명의 후보에 대한 TSG의 재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된다.

월드컵을 끝낼 차기 스타로는 박지성의 동료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촉망받는 호날두와 루

니가 대표 주자.

포르투갈의 '젊은 피' 호날두는 만 18세에 대표팀에 합류한 뒤 화려한 개인기와 스피드를 앞세워 유로 2004에서 조국을 준우승으로 이끈 주역이다. 축구 실력 놓지 않게 꺾어 놓은 듯한 외모를 가진 얼짱으로 여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것으로 보인다.

잉글랜드 축구 종종의 기수로 나선 루니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16세였던 2002년 에버턴 유니폼을 입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최연소 득점기록을 세웠고 2003년 17세의 나이로 잉글랜드 대표팀에 뽑혀 A매치 29경기에서 11골을 뽑았다.

탁월한 위치 선행 능력과 순발력을 지녀 '제2의 마라도나', '아르헨티나의 희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메시(FC 바르셀로나)도 최고의 젊은 플레이어상 영예에 도전장을 던졌다.

한국의 박주영(FC 서울)도 명함을 내밀었고,

'제2의 뷔트' 판 니스텔로이(맨유)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기대주 리안 바벌(야스), 스웨덴의 철벽 수비수 세르히오 라모스(레알 마드리드) 등도 신인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잠재적 경쟁자들이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독일 월드컵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날 선수들로도 이번 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아트 사커'의 중원사령관으로 활약하며 레브리 군단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지네딘 지단(프랑스)과 포르투갈의 테크니션 루이스 피구가 대표적이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과 유로 2000에서 프랑스를 정상으로 이끌었던 지단은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한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라는 칭송을 받은 그의 밭에서 시선을 떼기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동아여중·고 무용부, 한양대 무용경연서 두각

## 창작부문 이예리 독무 특상

## 군무팀도 중·고 특상 힘쓸어



을 수상했다.  
또 안진영  
(동아여고 2  
년) 양은 저학  
년 발레 창작  
부문에서 금상  
을 받았다.

그밖에 호남예술제 발레부문 군무경연에서 최고상 없는 금상을 수상한 동아여고와 동아여중 군무팀은 이번 한양대 경연에서는 각각 최고상인 특상을 수상했다.

/김미온기자 mekim@

## 정진석 추기경 모교 중앙고 방문

## "서로 돋고 살아야 공동체 발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언제 깨달아야 할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내 장점이 뭐고, 뭘 잘하는지 깨달아야 해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75) 추기경이 8일 모교인 서울 종로구 계동 중앙고(교장 정창현)를 방문해 후배들에게 강연했다.

이날 강연은 중앙고 개교 98주년(6월 1일)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 정 추기경은 1944년 중앙중에 입학해 6·25전쟁 직전 중앙고 41회로 졸업했다.

정 추기경이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강당에 들어서자 이곳에 모인 800여 명의 학생은 “추기경 선배님이 우리 학교에 오셨다”며 일제히 힘찬 박수로 환영했다. 뒤쪽에 서있던 학생들은 단상에 오르는 정 추기경을 더 자세히 보려고 깡총 깡총 끌어졌다.

정 추기경은 이 강연을 위해 별도로 원고를 준비했지만 “내가 딱딱한 얘기 하면 재미없겠죠”라고 첫 마디를 꺼내고는 원고 없이 쉬운 말로 즉석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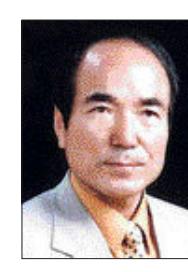
정 추기경은 “사람은 각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어



2002 월드컵 4강 기념비 제막 광주시·광주시관광협회·히딩크관광호텔 8일 광주 히딩크관광호텔 앞마당에서 2002년 한

일 월드컵 4강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

## 광주출신 하영철씨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김종호)가 주최한 올해 제25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에 광주 출신 하영철(사진·65·서구 화정동)씨의 ‘음시’(사진)가 8일 선정됐다. 대상은 ‘예수의 고난’을 출품한 홍은수(66)씨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김영찬(52)씨의 ‘휴식’에 돌아갔고, 특선은 하씨의 작품을 비롯 12점, 입선작은 156점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서울 대학로 국제디자인프라자에서



전시되고 다음달 4일부터는 광주와 부산 등 10개 도시에서 순회전을 갖는다. 02-744-8062. /윤영기자 penfoot@

## 내방

▲조영택씨(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이용섭 행자부장관  
광주대서 '혁신' 특강

이용섭 행자부장관

이 장관은 또 이날 오전 11시 전남대 용봉홀에서 열린 전남대 개교 54주년 기념식에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대 총동창회로부터 '용봉인 영예상'을 수상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 앞서 두 딸 아이를 둔 아버지를 보고 “내 머리칼이 샌 이유는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뇨, 심대 딸들 때문에 머리가 허여졌어요”라고 농담을 건넸다.

부시 대통령은 이제 20대에 이른 두 딸이 10대 때 꽤나 말썽꾸러기였음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섭 행자부장관

광주대서 '혁신' 특강

이용섭 행자부장관은 8일 오전 9시 20분 광주대 호심관에서 교수와 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혁신을 통해 꿈을 이루자’는 주제의 특강을 했다.

국민 대회장=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기장 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제2회 전남여성인권대회=6월 10일(토) 오전 9시30분 대전시청 대회장. 010-9430-9936

▲전남여성인권대회=6월 10일(토) 오전 9시30분 대전시청 대회장. 010-9430-9936

▲제2회 전남여성인권대회=6월 10일(토) 오전 9시30분 대전시청 대회장